

## 제274회 임시회 코로나19 대응시책 관련 보고의 건

10.6.(수) 10:00 의회 본회의장

기안: 이병욱(평가담당관/3312)

검토: 서인석(평가담당관/3311)

수정: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먼저 오늘 제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는

인천시가 올 한해 땀 흘려 일궈낸 성과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의 기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일 2, 3천 명을 넘나드는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 역시 10월이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방어해 온 우리 시 역시

최근 매일 100명 이상의 시민이 확진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당부를 거듭해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감염병의 위세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들려온 부평구 공직자의 사고 소식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안전하다.” 라는 절박한 목표와  
‘수도권 제일의 방역 대응 도시’ 라는 찬사 뒤에 있던  
공직자와 의료진의 희생, 그리고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자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명을 달리한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벌써 2년 가까이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인천의 모든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와 함께 현장의 노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인천형 방역만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을 지켜온 모든 분들의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선제적인 검사와 신속한 백신접종 추진 등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통을 줄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시민 안전만 생각하며 희생하고 헌신해 온  
사람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불편하고 고단합니다.

생계마저도 막막한 이웃과 소상공인들 역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인천시는 ‘방역과 일상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은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막아내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경증 및 무증상 환자의 재택치료 체계도 꼼꼼히 갖추어서

효율적인 병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점인

성인 80%, 고위험군인 고령층 9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맞춰

방역 관리는 확실히 하면서도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은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조치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준비 역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와 올해,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각각 5천 400억 원, 5천 500억 원 규모의 시비를 추가 투입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지원하자’는 원칙을 기본으로,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던 재난지원금은 물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문화·관광·운수업 종사자 지원과 같은  
‘맞춤형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인천e음 캐시백 10% 지속’이라는 특화 지원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거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온 국민이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동시에  
침체된 경제 활력도 다시 끌어올려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대책에는 모든 시민에 대한 ‘(가칭)일상회복 인천지원금’과  
집중적인 피해를 입으셨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임시회에서,  
‘확실한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면 하반기에  
인천만의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결과,  
재원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채무나 채무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준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만들어 낸 재정 건전성과 여력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인천형 방역’에 버금가는 ‘인천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워진 가게 살림에는 보탬이 되고,  
힘들어진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써야할 곳에는 쓴다,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가장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 기조 위에서 이번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모범적인 ‘방역과 일상의 조화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지원은 늦어도 12월내에 지급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일정은  
앞으로 의회와 충실히 협의해 가겠습니다.  
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안해주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앞서 말씀드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체계와  
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부디 올 연말만큼은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시민들께서 마스크 속에서도나마 미소를 지으며  
예년의 연말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간은 올해가 마지막이길 바라며,  
인천시는 늘 그래왔듯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드리기 위해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